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이 시대의 우상    성경: 사도행전 19장 23-41절

Tag:

23 그 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24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테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25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을 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26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27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테미의 신전도 무시 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28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29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케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스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30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31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치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32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33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34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

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두 시간이나 하더니

35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36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37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38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39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40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 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41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행19:23-41)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3차 전도여행 중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

에베소에 있는 어떤 제자들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었다. 그들은 성령세례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어서 바울은 그들에게 요한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와 부활과 성령의 세례까지 전파하였다.

그들은 주저 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금 세례를 받고자 하였다.

바울이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안수 기도하니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였다. (12명 쯤)

3개월쯤 회당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배척하므로, 하는 수 없이 두란노 서원을 열어서 2년동안 날마다 제자들을 가르쳤다. 왜냐면 두란노 서원이 소문이 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기 때문이다.

에베소 사람들은 마음이 순전하여 복음을 잘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

들은 원래 우상숭배도 심하였고, 무당을 섬기는 자들도 많았다. 특히 그들은 마술을 하는 사람들에게 미혹된 자들이 많았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숭배에서 떠나게 되었고, 마술을 하는 사람들도 회개하며 다시는 마술을 하지 않기로 하며 마술에 관한 책을 불태우기도 하였다.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도를 듣고 우상숭배와 귀신 숭배와 조상숭배로부터 깨어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귀신이 쫓겨 나갔으며, 병든 자들이 나음을 입고 구원을 얻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흉내를 내기도 하는 등 에피소드들도 많았다.

에베소에서의 부흥은 그 지역 인근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 계기가 되었다. (소아시아 일곱교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처럼 성령운동이 한창인 에베소에 우상숭배자들의 데모가 일어났다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다.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업자가 점점 장사가 안되고, 사람들이 자신이 만든 우상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분위기가 점점 더해지고 있다고 느꼈다. 사람들 말을 들어보니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말도 한다.

그래서 데메드리오는 은장색 조합원들을 불러 모았다. 그들은 자기들의 업이 업신여김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 분개하였다. 에베소는 예로부터 아데미 신전으로 유명한 곳이다. 이곳은 당시에 종교적 관광 명소로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소원을 빌고 갔으며, 우상을 사갔다.

-그러나 장사가 되지 않자 스스로 모여 부흥회를 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신전에서 예배할 때 사용하는 어귀를 표어 삼아 외치기 시작하였다. **‘크도다 에베소인의 아데미여’(메갈레 헤 알테미스 에페시온)**

-그들은 큰 소리로 표어를 외치며 연극장으로 행진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때의 행진은 관청의 허락을 받지 않은 불법집회였다.

-그러자 길을 지나던 행인들이 이 무슨일인가 하여 물려들기 시작

하였다.

-그들도 큰 소리로 표어를 따라 외치기 시작하였다.

-소리가 커지자 더 큰 군중이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사람들은 무리가 모이면 괜히 흥분하는 특징이 있다.

-모인 사람들의 태반이나 왜 모였는지 이유를 모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도 몰랐다.

-그러자 관리가 나와서 무리들을 안돈 시키고 우상숭배를 배척하는 사람들이 당신들을 공격한 것도 아니고, 우상을 흠쳐간 것도 아니고, 신전의 물건을 흠쳐간 것도 아니니 어서 돌아가라고 해서 집회는 성 겹게 끝을 내고 말았다.

오늘날의 우상숭배는 단순히 형상을 숭배하는 것에 지나친다.

그러므로 우상숭배는 그 정신을 알고 그 정신을 타파해야 할 것이다.

## 1. 우상숭배는 물신 숭배이다.

-세상에는 돈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다.

-이 사람들은 온통 돈을 더 많이 가지려는데 정신이 팔려 있다.

-우상을 숭배하는 목적은 오직 돈을 더 벌려는데 있다.

-그들이 여신 아데미(많은 유방이 있음.)의 신전을 소중히 여기는 이유도 오직 많은 돈을 벌기 위함이다.

-그들이 많은 돈을 벌려는 목적은 무엇인가? 더 많은 향락을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더 좋은 옷을 더 많이 사고, 더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고, 더 갑질을 하고, 더 멋있는 곳으로 여행을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돈을 벌려는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는데 초점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물신숭배에 빠지지 않는다.

## 2. 우상 숭배는 어리석은 것이다.

- 우상이라는 말 자체가 어리석은 상이라는 뜻이다.
- 우상숭배가 많은 사회란 어리석은 말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 기본적으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이런 어리석은 말들을 선별하여 거짓이 자신의 삶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 오늘날에는 새로운 사실들을 밝혀내어 유익을 주는 경우도 많지만, 그에 못지않게 어리석은 말들도 많아 우리를 해롭게 한다.
- 생산되는 말 가운데 지혜로운 말이 많은 사회는 선진 사회요, 어리석은 말이 많은 사회는 후진 사회이다.
- 자신이 따르고 믿는 말 가운데 지혜로운 말과 진리의 말을 따르는 자는 행복하고 유익하며 보람이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어리석은 말을 믿고 따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복을 받지 못할 것이다.

- 요즘에 떠도는 어리석은 말.
- 태양광 발전이 원자력 발전보다 낫다? no. 태양광 발전은 원자로 발전에 비교해서 훨씬 더 환경 파괴적이며, 효율도 낮으며, 시설 비용이 비싸며, 무엇보다 사기업체가 너무 많다. 왜 태양광 발전은 한전에서 시공하지 못하는가?

-4대강 사업은 환경을 파괴하였고, 경제적 효과도 거의 없는 것으로 판명 되었으며, 이 시설을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no. 4대강 사업의 기본 목적이 치수와 용수이다. 홍수와 가뭄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벌인 사업이다.(놀랍게도 이 비용이 0원이라고 보고함.-이것만으로도 4대강 사업은 성공.) 이명박 대통령은 기왕 할 때 돈을 더 들이면 운하까지 가능하니 돈을 더 들이자고 했지만 무산되어서 치수와 용수만 가능하게 한 것이고, 그것도 최소화 해서 필수적인 곳만 해서 31조가 들어간 것이다.(물론 세밀하게 계산한다면 비리도 있었을 것이다.) 원래 김대중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24조를 편성, 노무현 정부때의 예산이 42조원이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때 4대강 수질 개선을 위해서 13년간 28조원을 쏟아 부었지만, 수질은 오히려 나빠졌다는 보고가 있었다.

녹조현상은 과거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시절에 더했다.

중요한 팩트는 녹조는 축산농가의 영향이지 4대강 사업의 영향이 아니다. 예산을 더 편성해서 축산농가의 오폐수를 완전히 없애야 녹조가 사라진다. 다른 방법은 없다.

-기왕 공사하면서 3m 더 깊게 파다고 예산낭비란다. 당연히 깊게 파야 더 큰 효과가 있다.

-그러면 왜 4대강 사업을 실패했다고 해야 할까? 정권 유지 차원.

3. 이상숭배에는 군중심리가 작용한다.

-단순한 입소문에 사람들이 행동을 따라한다.

-우리나라 광우병 소동이나 FTA 반대, 미군 탱크에 중학생 치어 죽어 촛불시위 탄생한 사건이나 세월호 사건에 대한 해결이나 이번의 탄핵 사건 모두 군중심리를 이용한 헤프닝 이었다.

-이제는 버젓이 정권 창출 세력들이 정권 유지용으로 군중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한다.

-이 시대의 이상 가운데 아이돌 산업을 빼 놓을 수 없다.

-아이돌 선발을 통한 우수한 인재 발굴이 목적이라면, 아이들의 삶을 파괴하는 짓은 그만 두어야 하리라. 소수 정예 뽑기 위해서 다수의 아이들이 상처를 입는다. 그들의 목적을 문화 생활을 통한 만족에 두어라.

-스스로를 이상화 하는 작업을 멈추라.

-이상화를 배격하는 삶은 세상 사람들의 이익에 반하는 운동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공격에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유익과 복은 오직 이상을 타파하고 진정한 경건으로 돌아가는 것 밖에 없다. 아멘.

4. 이상숭배는 악한 본능을 충동질한다.

<찬양예배>

**제목 :**       **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 / 레슬리 뉴비긴의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 -  
13장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나니: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둘러싼 논쟁'

Tag: